

주 보 람

작가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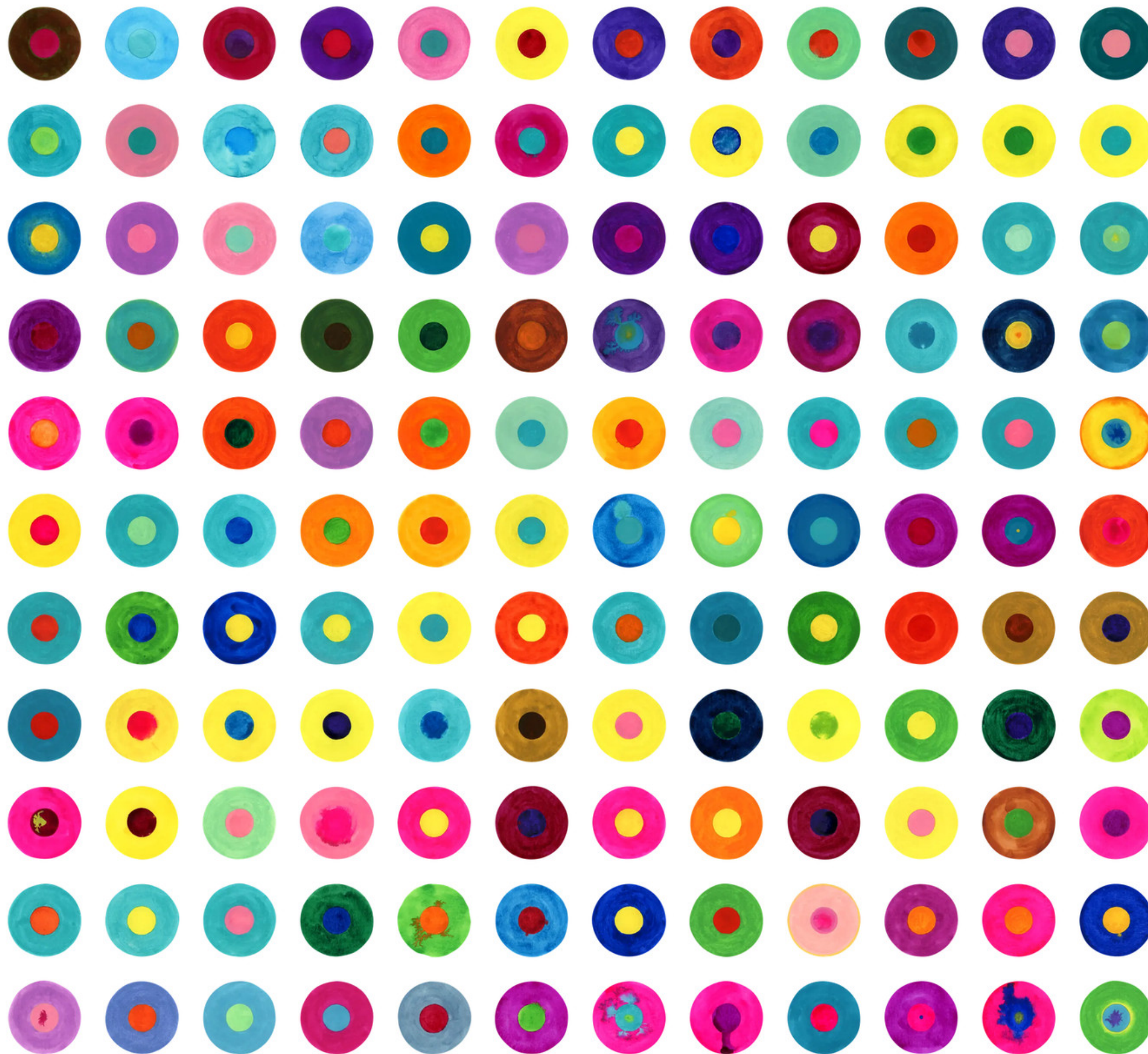
나는 완벽한 선과 원을 그리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손으로 반복해 그리는 선은 결코 완벽하게 닫히거나 곧게 나아가지 않는다. 미세한 떨림과 오차는 반복될수록 형태를 조금씩 바꾸고, 그 어긋남은 화면 안에 인간의 시간과 몸의 흔적으로 남는다.

나의 작업에서 원, 사각형, 삼각형, 십자는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이 아니다. 그것들은 중심과 경계, 안과 밖, 상승과 하강이 서로를 밀고 당기는 구조다. 원은 중심을 만들고 경계를 세우지만, 반복되는 손의 움직임 속에서 그 중심은 흔들리고 경계는 다시 열리거나 무너진다. 나는 이 불안정한 균형 속에서 완전과 불완전, 이상과 현실이 한 화면 안에서 만나는 순간을 찾는다.

색은 이러한 긴장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언어다. 서로 멀리 떨어진 색들이 한 화면에 놓일 때, 색들은 하나로 섞이기보다 각자의 목소리를 가진 채 서로를 밀어내고 끌어당긴다. 색과 색이 맞닿는 경계, 선이 반복되며 생기는 진동, 보는 나와 보이는 나 사이의 거리 속에서 화면은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계속 흔들리는 관계가 된다.

최근의 작업은 이러한 조형 언어를 감정과 기록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Gaze Halo에서 나는 매일의 감정을 색으로 기록하고, 그 색들이 시간 속에서 축적되는 방식을 관찰한다. 여기서 색은 감정의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과 몸의 상태, 시선의 방향이 남긴 기록이다.





Gaze Halo

Watercolor on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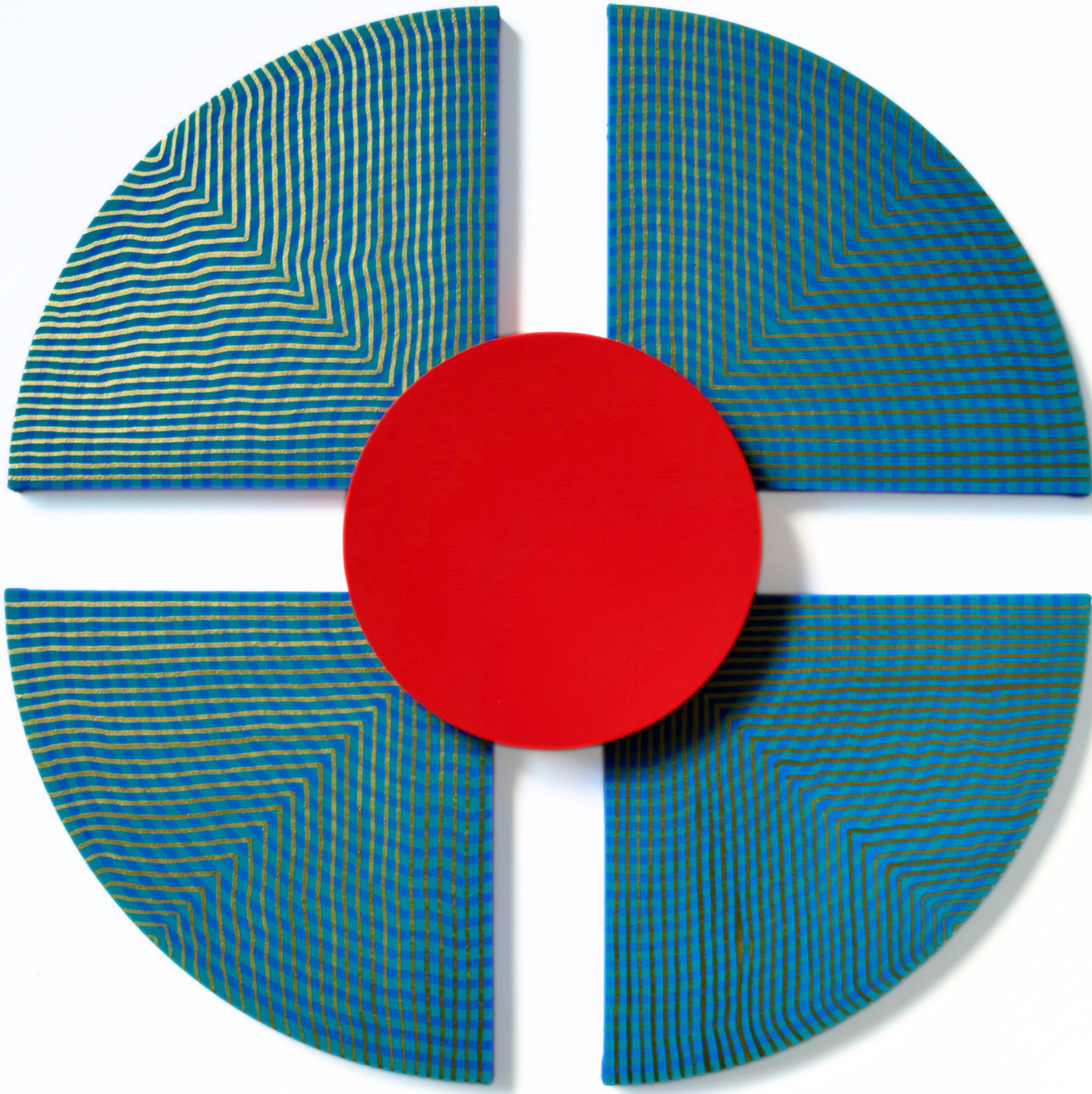
9 x 9 cm(ea) 132 pcs set

2025.12 — 진행 중

하루의 마음을 두 개의 동심원 — 빛과 그 후광 — 으로 남긴 기록. 매일의 감정 상태를 안쪽의 원과 그것을 감싸는 후광의 색으로 번역한다.

안쪽의 원은 광원이 되는 마음의 핵, 자기(Self)의 응축이다. 후광은 그 빛이 공기와 만나 퍼져나가는 자리 — 내면의 경계가 외부 세계와 만나는 지점이다.

2025년 12월 15일 시작해 132일의 기록이 쌓였다. 수채화 작업과 60주 한지 서책 달력, @gaze_halo 아카이브로 누적된다.



Hypersol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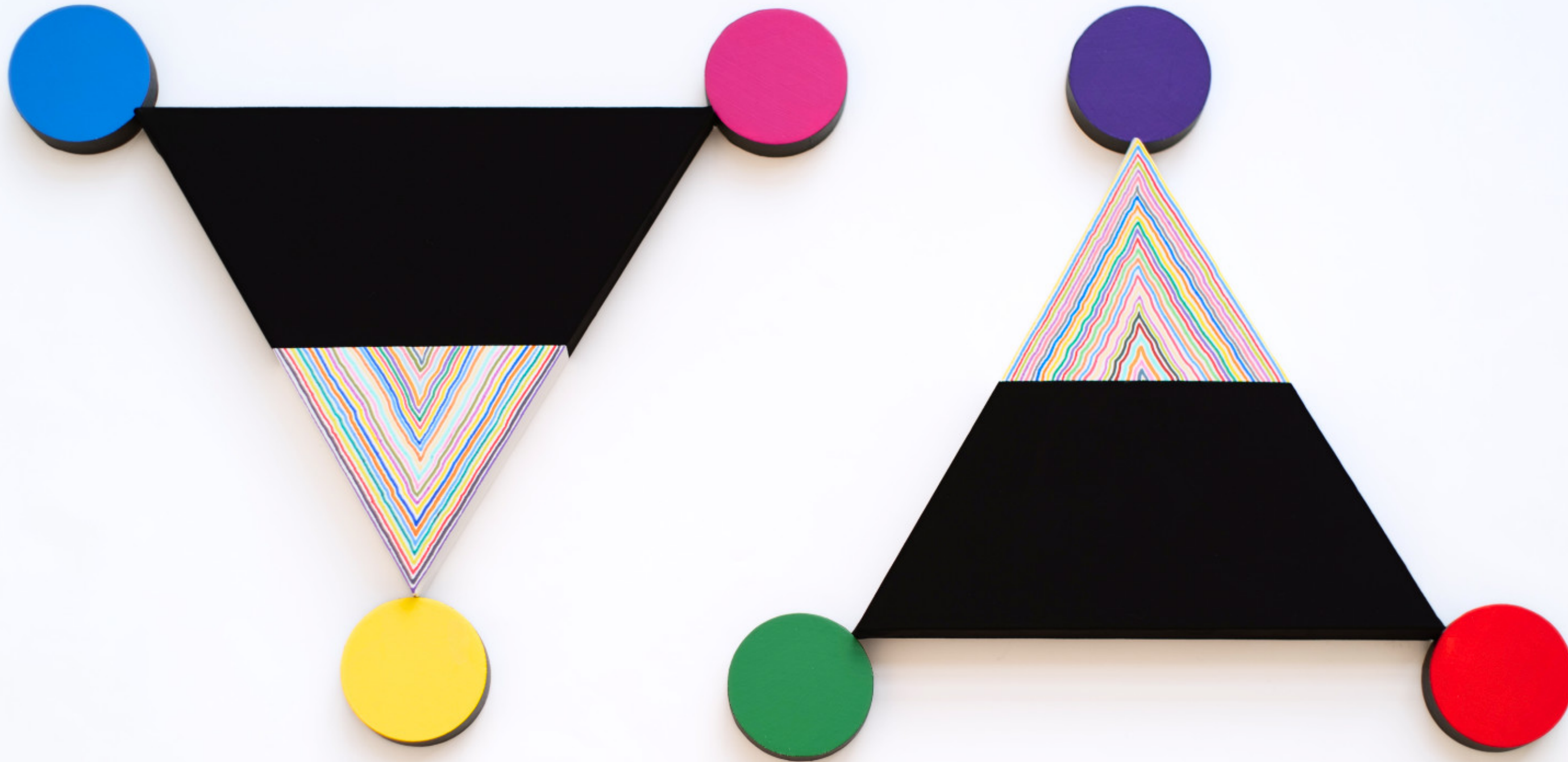
Mixed media
68 x 68 cm
2025

하나의 원을 4등분해 살짝 벌려 놓았다. 벌어진 틈이 십자(+)형의 여백을 만든다. 이 십자는 좌표축, 세계축(axis mundi), 시선이 머무는 길이자 호흡의 통로이다.

교차점의 핵심에는 강렬한 붉은 원이 무게 중심을 잡는다. 이는 꺼지지 않는 태양이자, 세계의 중심을 응시하는 눈동자다. 세계의 둘레를 따라 도는 파란 선과, 중심의 십자를 따라 파고드는 금색 선이 정교하게 엮인다. 이 두 계열의 선은 미세한 착시(모아레)와 진동을 일으켜, 화면을 실제로 회전시키는 듯한 감각을 부여한다. 그 결과 멈춘 듯한 붉은 태양 주위로 시간과 공간이 서서히 도는 듯한 인지적 경험을 유발한다.

〈Hypersolar〉는 긴장과 불안의 서사였던 〈시지프스는 죽었다〉를 위에서 내려다본 초월적인 시점으로 재해석한다. 산을 오르내리던 수직적 운동은,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으로 변환된다. 또한, 〈시지프스는 죽었다〉에서 붉은 원이 삼각형의 정점 위에 놓인 이상이었다면, 〈Hypersolar〉에서 붉은 원은 분열된 모든 것이 응축되는 지점, 즉 이상과 현실이 마침내 합일(合一)하는 통합의 중심으로 재정의된다.

궁극적으로, 세계를 응시하던 붉은 눈동자는 이제 관람자인 세계에게 응시당하며, 작품은 참여의 자리에서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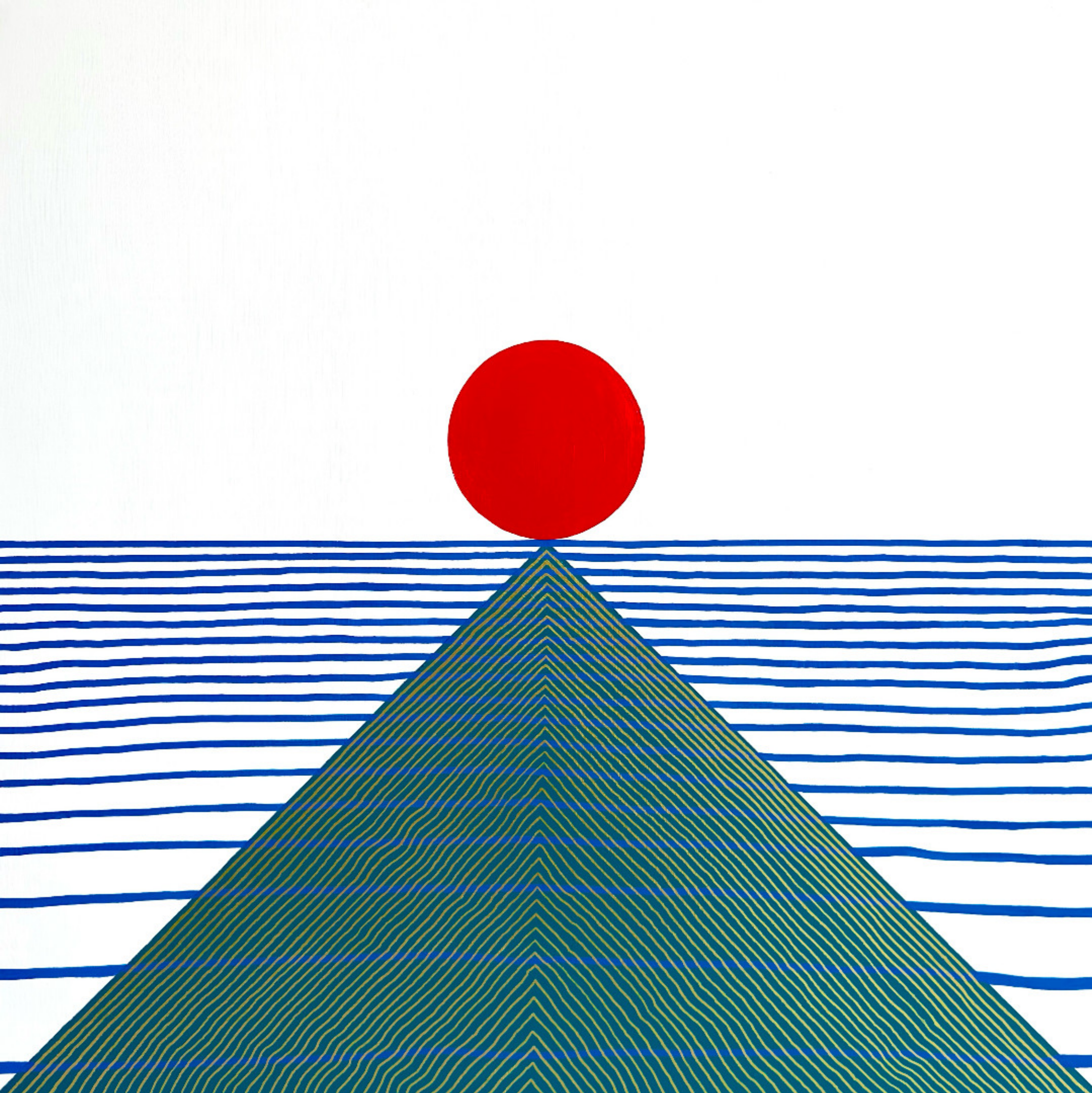
이상(理想)의 정의

Acrylic on canvas and panel
60 x 100 cm
2024

두 개의 삼각형을 하나는 아래를 향하게, 하나는 위를 향하게 배치한 후 삼각형의 각 꼭지점마다 원을 놓았다. 이상은 상대적인 것이며 관점에 따라 올라가는 것이 내려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작품이다.

삼각형의 모서리를 따라 선을 계속해서 그려나가다보면 언젠가 변화가 찾아온다.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상징되는 있음과 없음, 음과 양의 이분법이 뒤집히고 하나로 통합되는 순간이다. 이상을 나타내는 원은 정과 반을 거쳐 합을 반복하며 순환한다.

삼각형에 붙은 원은 각각 색의 삼원색(Magenta, Cyan, Yellow)과 2차 색으로 서로 동등한 위치를 갖는다. 마주 보는 원끼리 줄을 이으면 서로를 보완해주는 보색 관계가 된다.



시지프스는 죽었다

Acrylic and oil on canvas

80 x 80 cm

2024

〈시지프스는 죽었다〉는 뾰족하게 솟은 삼각형 꼭지점 위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붉은 원, 그리고 이들의 접점을 가로지르는 수평선을 통해 ‘영원한 정점의 순간’을 포착한다. 이 작품에서 붉은 태양은 닿을 수 없는 이상을, 청록색 산은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길과 의지를, 파란 바다는 그 길 위에서 찾아야 할 안정과 평화를 상징한다.

이 그림은 원,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기본 도형들과, 빨강과 청록, 파랑과 노랑(금색)이라는 보색 관계의 단순한 조형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각의 요소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이다. 빨간 원은 보색 관계인 청록색 삼각형에 의해 떠받쳐지며 극도의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위태로울 수 있는 이 수직적 구도를 파란 수평선이 가로질러 안정감을 부여한다. 삼각형이 가진 상승의 에너지는, 동시에 파란색 물이 지닌 하강의 에너지와 맞서며 서로의 균형을 잡는다. 또 파란색 선 위로 겹쳐지는 금색 선은 보색 관계를 이루며, 나이트처럼 층층이 쌓여가는 모습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순환적 깨달음의 여정을 상징한다.

이 모든 요소들 — 붉은 태양, 청록의 산, 파란 바다 — 는 정사각형 화면의 중심에서 접점을 이루며, 나의 이상(태양), 현실(산),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균형(수평선)을 하나로 묶는다.

이 작품은 진리를 향해 오르는 인간의 긴장된 여정을 상징하며, 그 길 위에서 마주하는 존재론적 불안과, 동시에 질서와 혼돈의 변증법적 조화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 질서와 혼돈, 안정과 긴장, 정적과 동적 에너지 등 대립하는 요소들이 상호 긴장 속에서 더 높은 차원의 통합을 지향하는 운동은 나의 작품 세계의 본질이자,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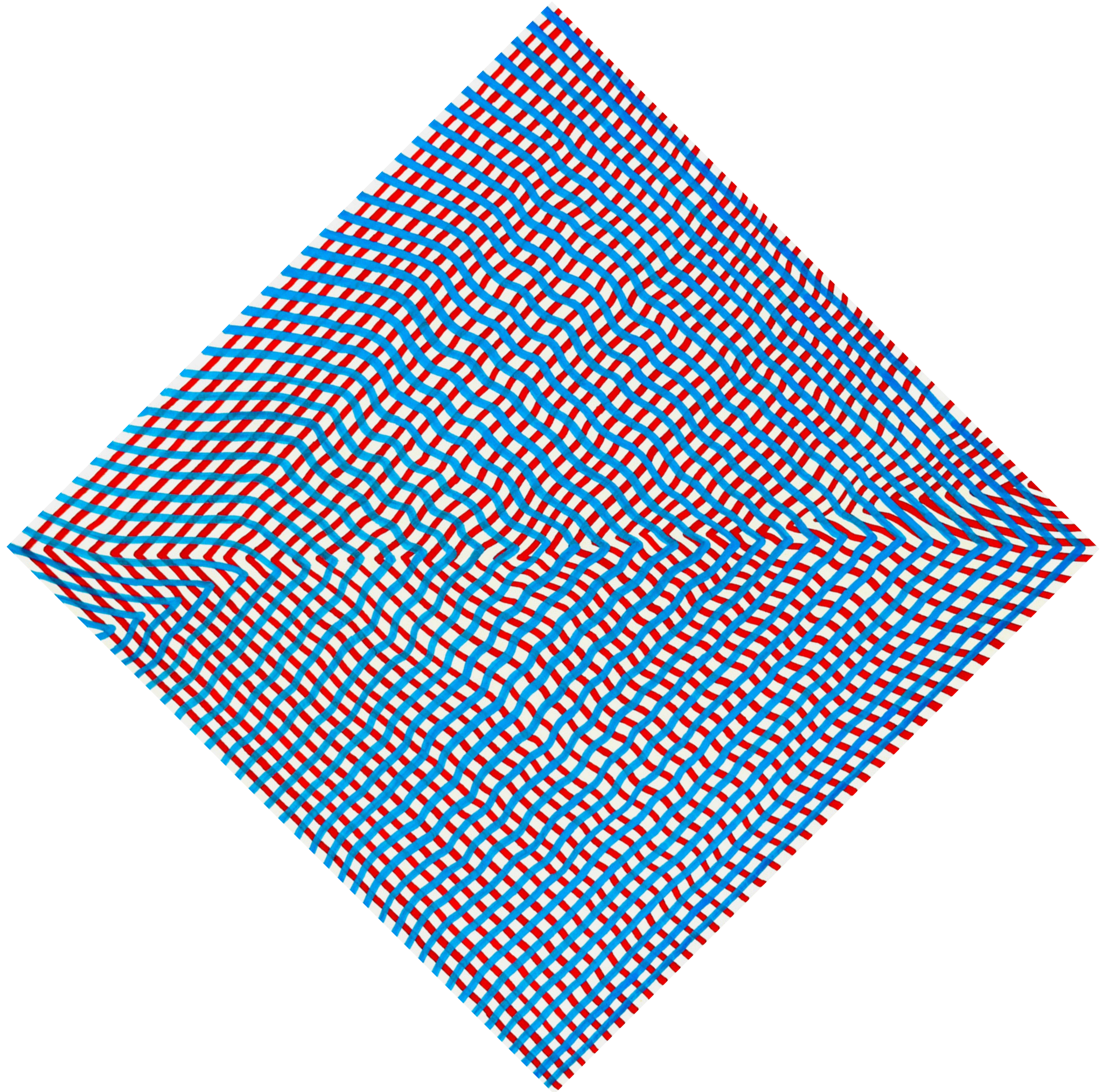
Waves from the Cor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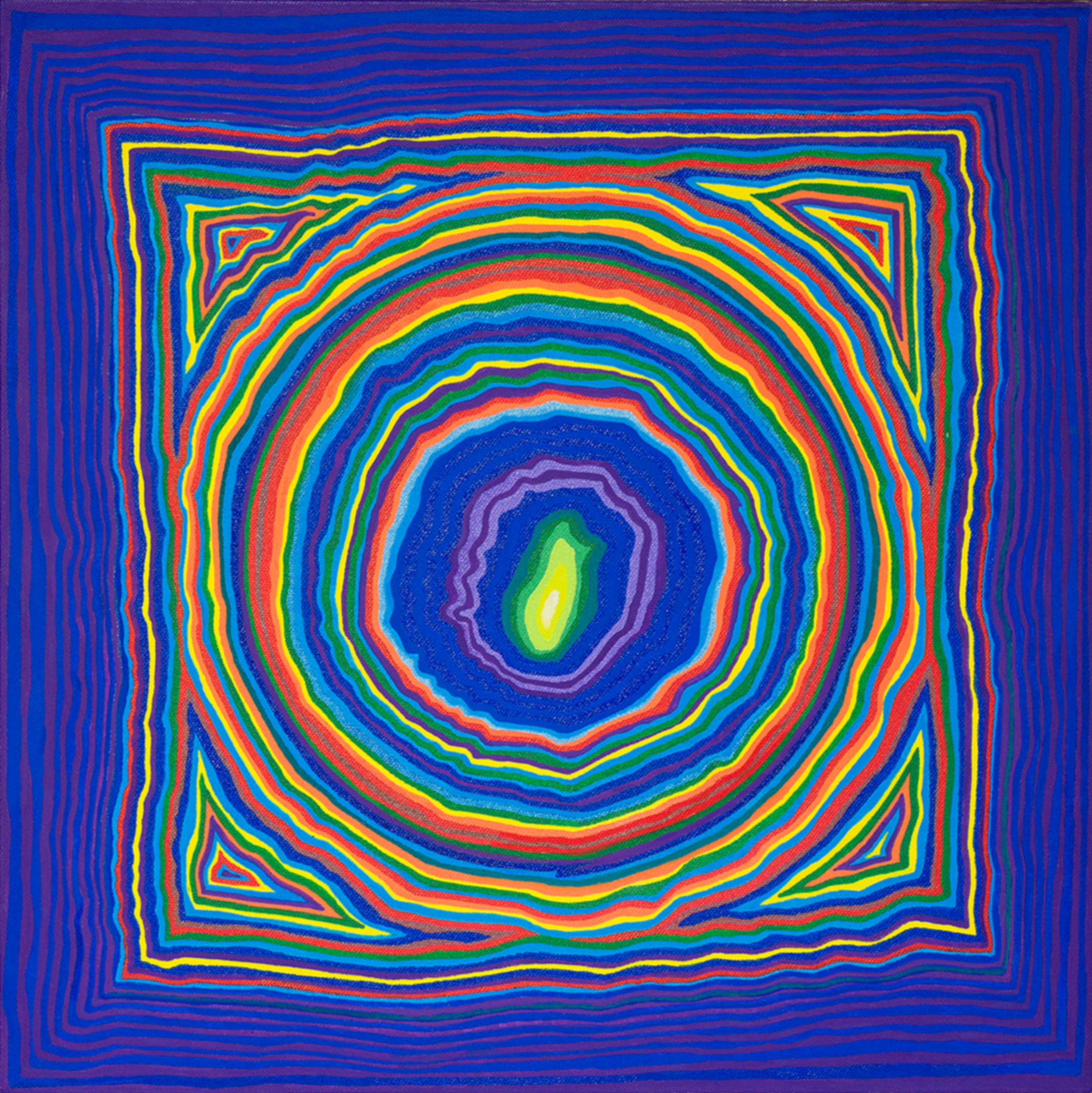
Acrylic on panel
42.5 x 42.5 cm
2025

화면의 양쪽 모서리를 따라 선을 그었다. 날카로웠던 직각은 반복을 거듭하며 점차 물결치듯 흐르기 시작한다. 두 계열의 선은 조금씩 위상이 어긋나며 공명하여 화면 전체를 하나의 간섭장(Interference field)으로 만든다.

나는 일부러 진출색인 빨강을 뒤에, 후퇴색인 시안(Cyan)을 앞에 두었다. 그 결과 실제 원근과 색입체시(Chromostereopsis)가 충돌하며 이중 깊이와 시각적 지연을 만든다.

관객의 눈은 두 파가 만나는 지점에서 정박하지 못하고 미끄러진다. 이는 단순한 모아레 효과를 넘어 응시의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호출한다.





점화

Acrylic on canvas

45.5 x 45.5 cm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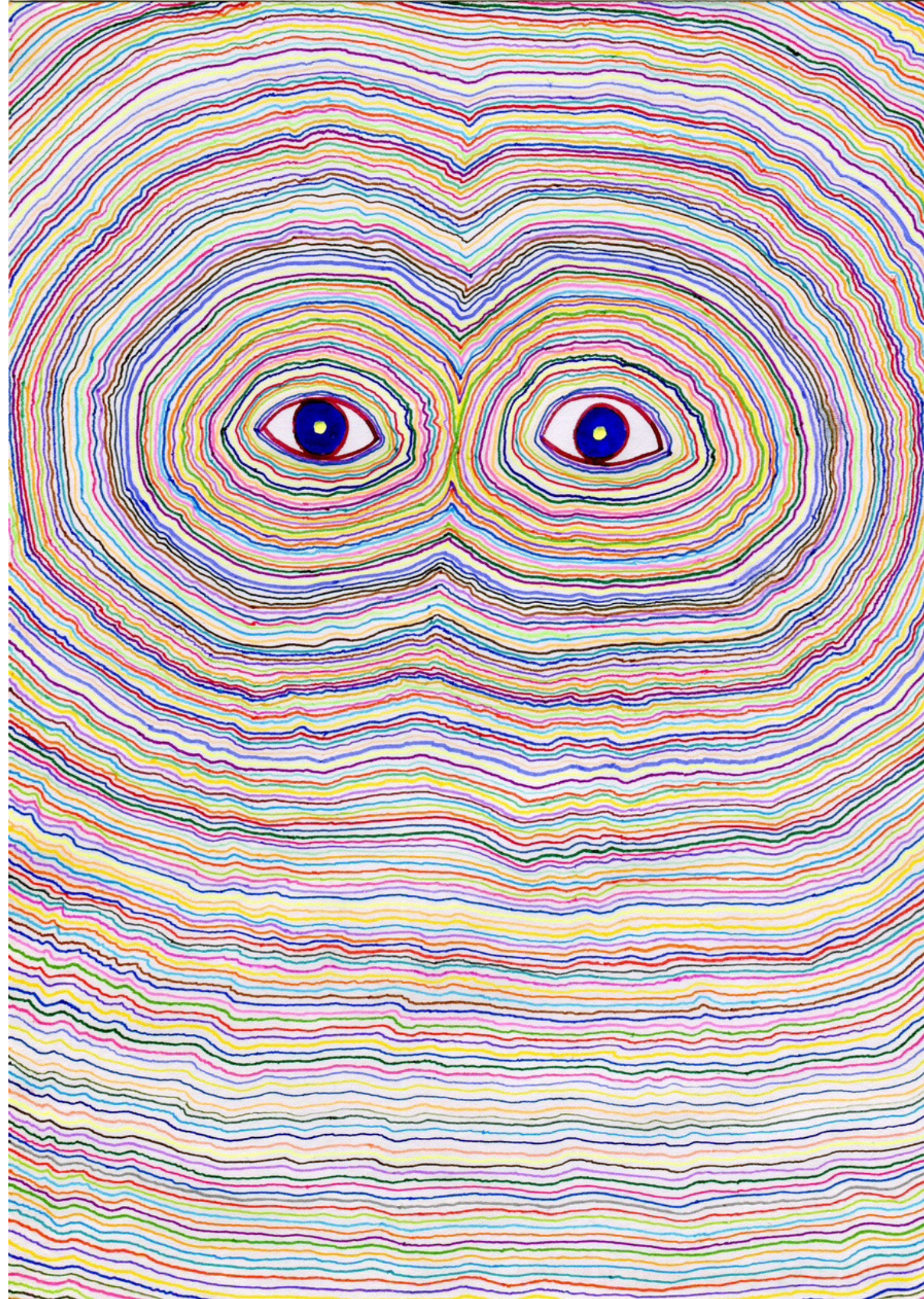
원과 사각형에서 시작했더라도 인간의 손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만다라의 모양은 자연스럽게 점점 규격에서 벗어나 왜곡되고 뒹굴어진다. 완전해지려는 수행까지도 결국 불완전하게 표현된다.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면 가장 작은 단위의 모든 불완전함들이 완전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색색깔 주보람》(2024, 아팅 갤러리) 개인전 전시 전경

Look into an Abyss

Pen on paper
21 x 15 cm
2023



“if you gaze for long into an abyss,
the abyss gazes also into you.”
- Nietzsche

Eye-contact

Ink and pen on paper
19 x 26 cm
2021





이별

Poster color and pen on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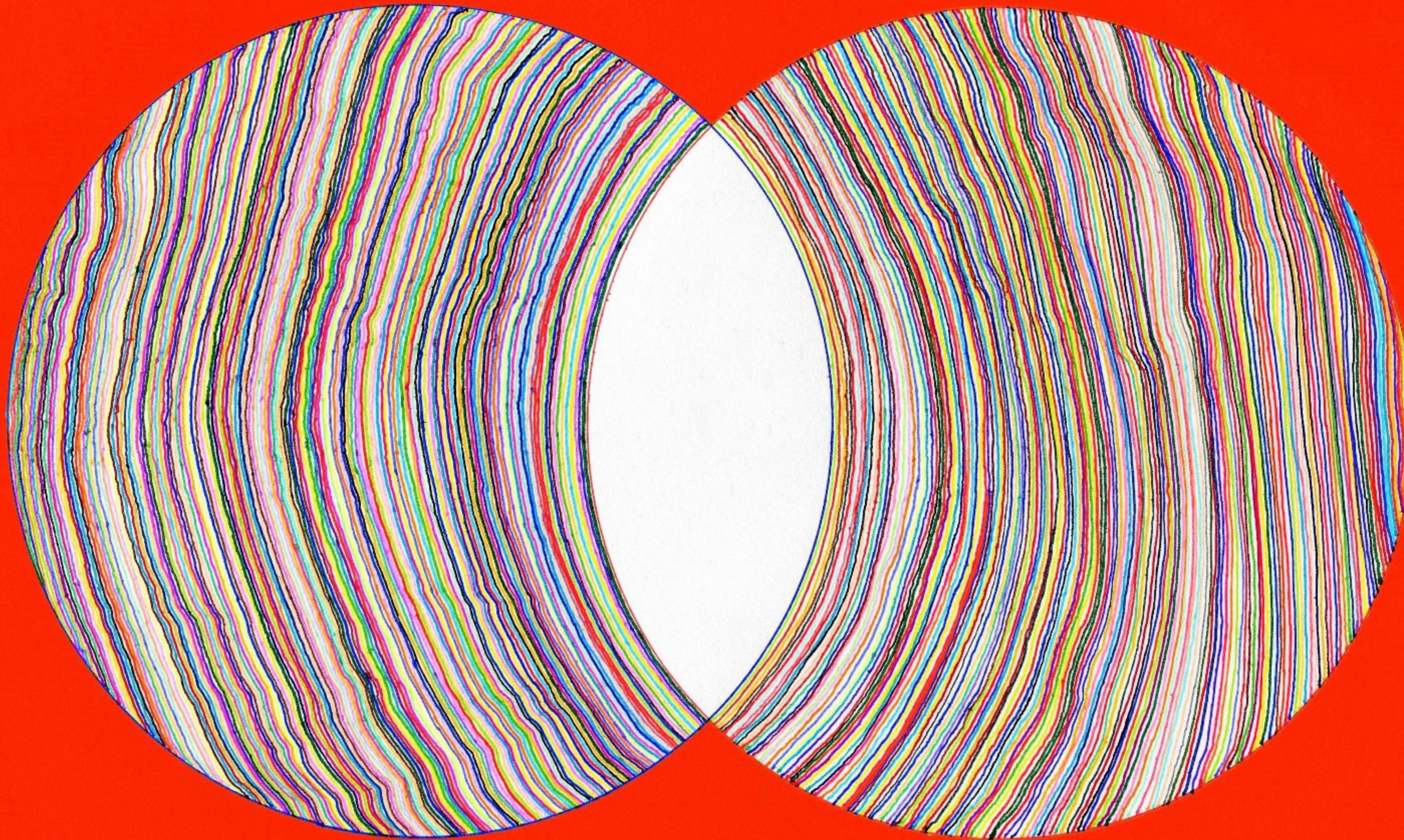
53 x 38 cm

2021

각자의 궤도를 돌던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난다.

모서리가 맞닿아 있는 것은 절정의 순간의 표현이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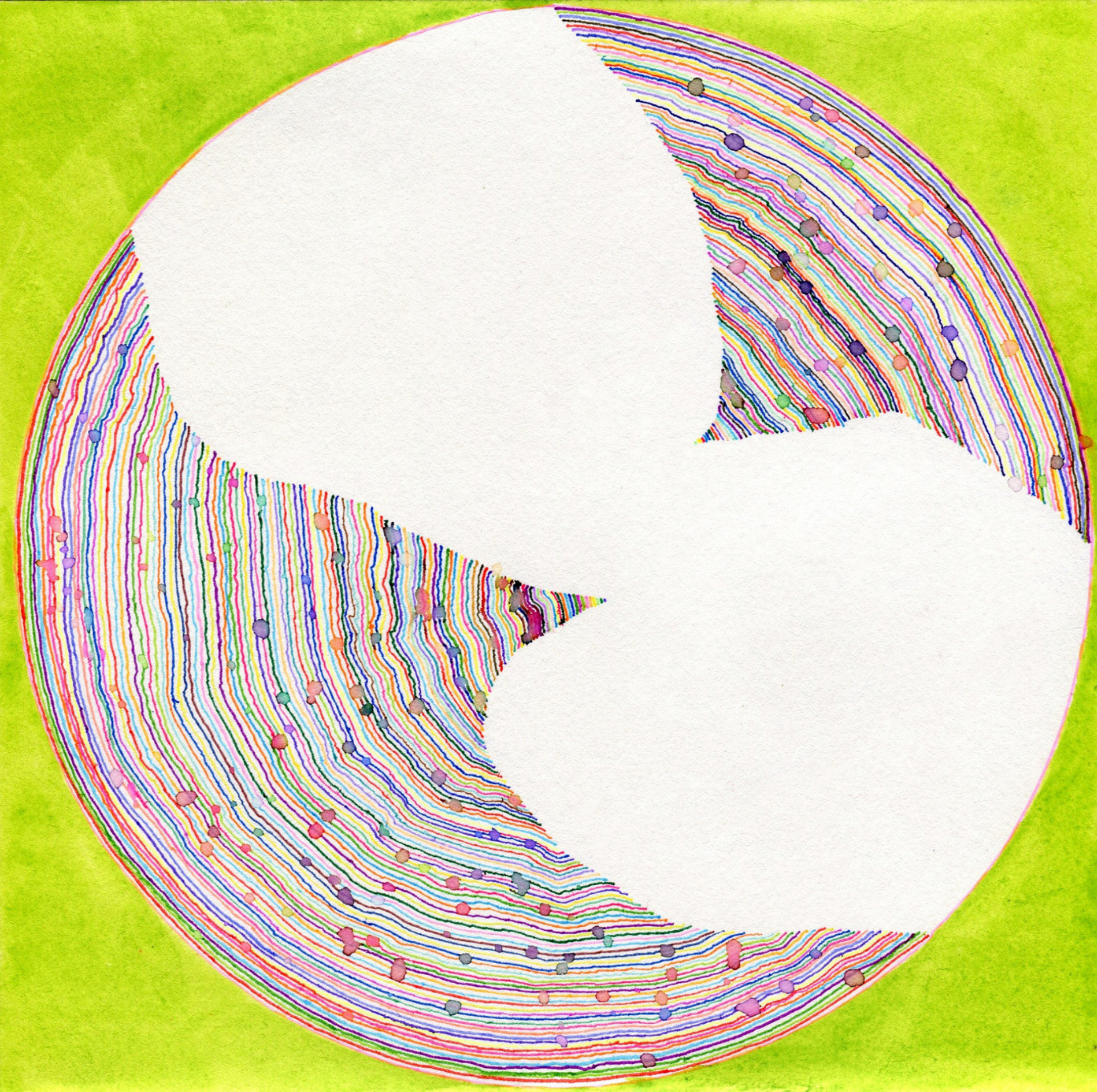
하지만 곧 서로 떨어지게 될 것을 암시한다.



()

Gouache and pen on
paper
21 x 30 cm
2021

두 원이 겹쳐지는 순간,
둘의 교집합에서 파동이 일어난다.
존재와 존재의 만남, 관계를 통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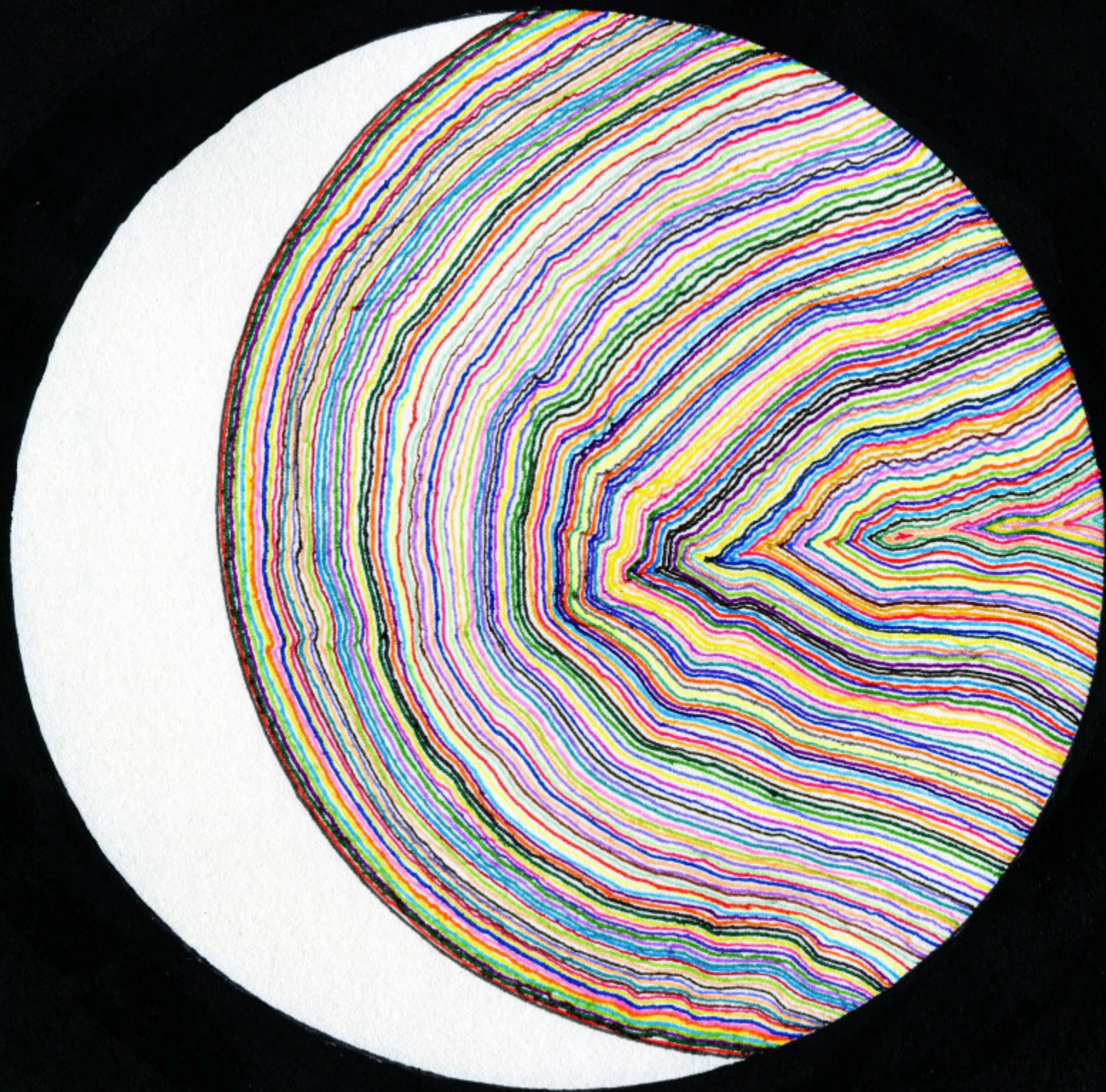
Inner self

Water color and pen on paper

19.5 x 19.5 cm

2021

원의 둘레를 따라 반복해서 선을 그려나간다. 이 그림에서는 일부러 원을 완전히 감싸지 않고 일부를 비워 회로를 완성시키지 않았다. 이 ‘미완의 원’은 안쪽으로 파고들며 조금씩 길이가 짧아진다. 선의 ‘길이가 줄어드는 규칙’은 아이러니하게도 불규칙한 여백의 형태를 만든다. 나는 여기에 작은 물방울을 떨어뜨려, 선의 색끼리 섞이게 만들었다. 작은 물방울은 마치 악보 위의 음표나, 기억 속의 사건을 연상시킨다. 나는 선의 축적과 여백을 충돌시켜 질서와 무질서, ‘완성되려는 힘’과 ‘미완으로 남기려는 힘’ 사이의 긴장과 균형을 표현했다.



Eclipse

Ink and pen on paper

19.5 x 19.5 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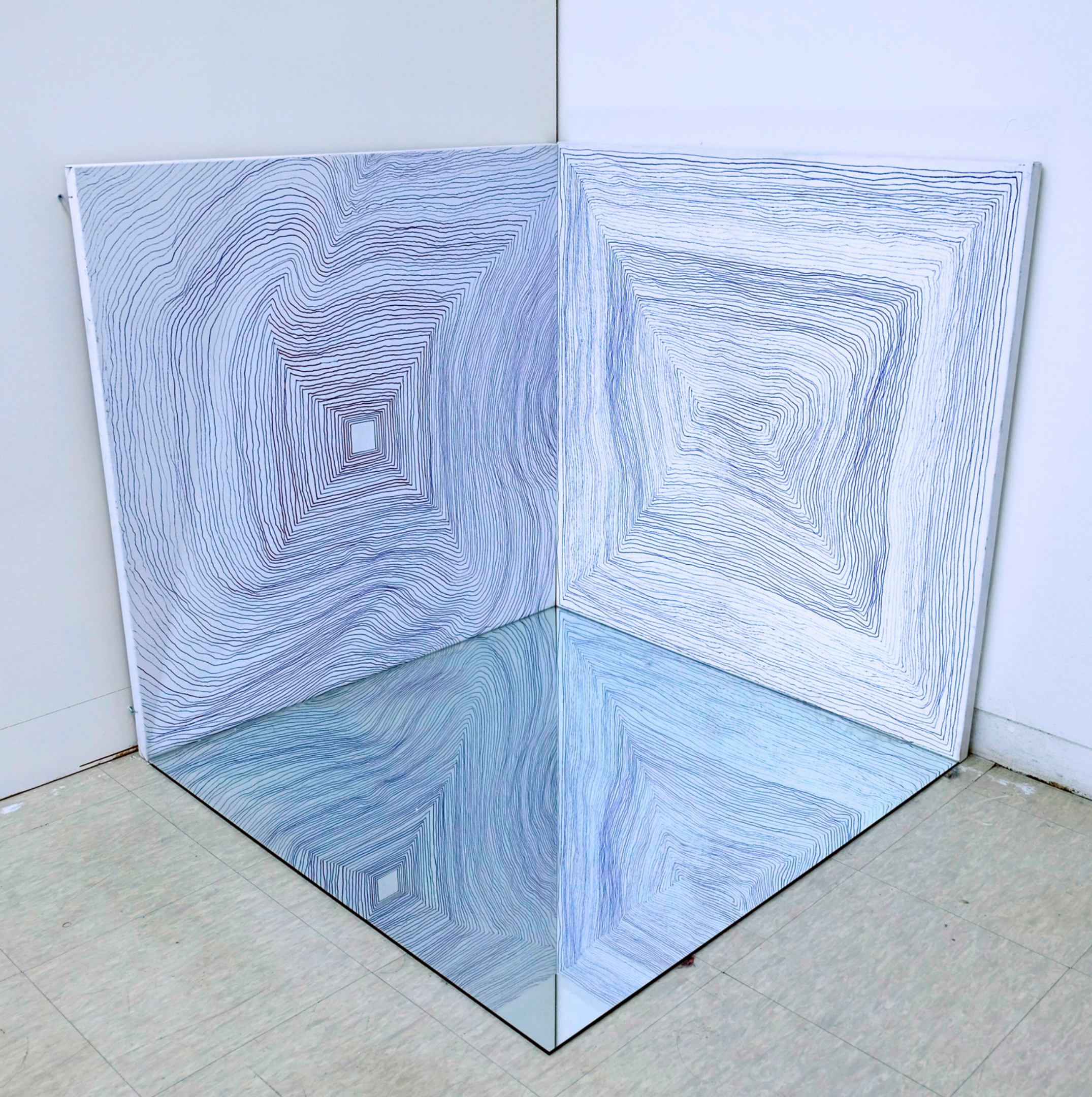
하나의 원 안으로 다른 원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



Rolling Light

Pen on paper
19.5 x 19.5 cm
2021

원의 둘레를 따라 한 줄씩 선을 재현해나간다.
처음으로 닫힌 도형이 아닌 열린 도형을 따라 선을 그려나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이 점점 짧아지면서 종이의 가장자리에 닿았다.



Perfect Square

Marker on canvas and mirror

90 x 90 x 90 cm

2018

완벽한 사각형을 재현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한다. 하나는 사각형으로부터 밖으로 선을 그려나가고, 다른 하나는 사각형으로부터 안으로 선을 그려나간다. 선은 점점 변한다. 선을 덧그리는 작업은 일종의 수행이다. 수행 속에서 알게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변한다는 사실을. 변화를 억압하지 않고 선을 통해 변화를 받아들인다. 완전성에 도달하는 일이 불가능한 과제라면 나는 끊임없이 성공에서 미끄러지면서 우연과 실패로서의 '완전'을 말한다.



Perfect circle

Ballpoint pen on canvas
40 x 40 cm(ea) 2pcs set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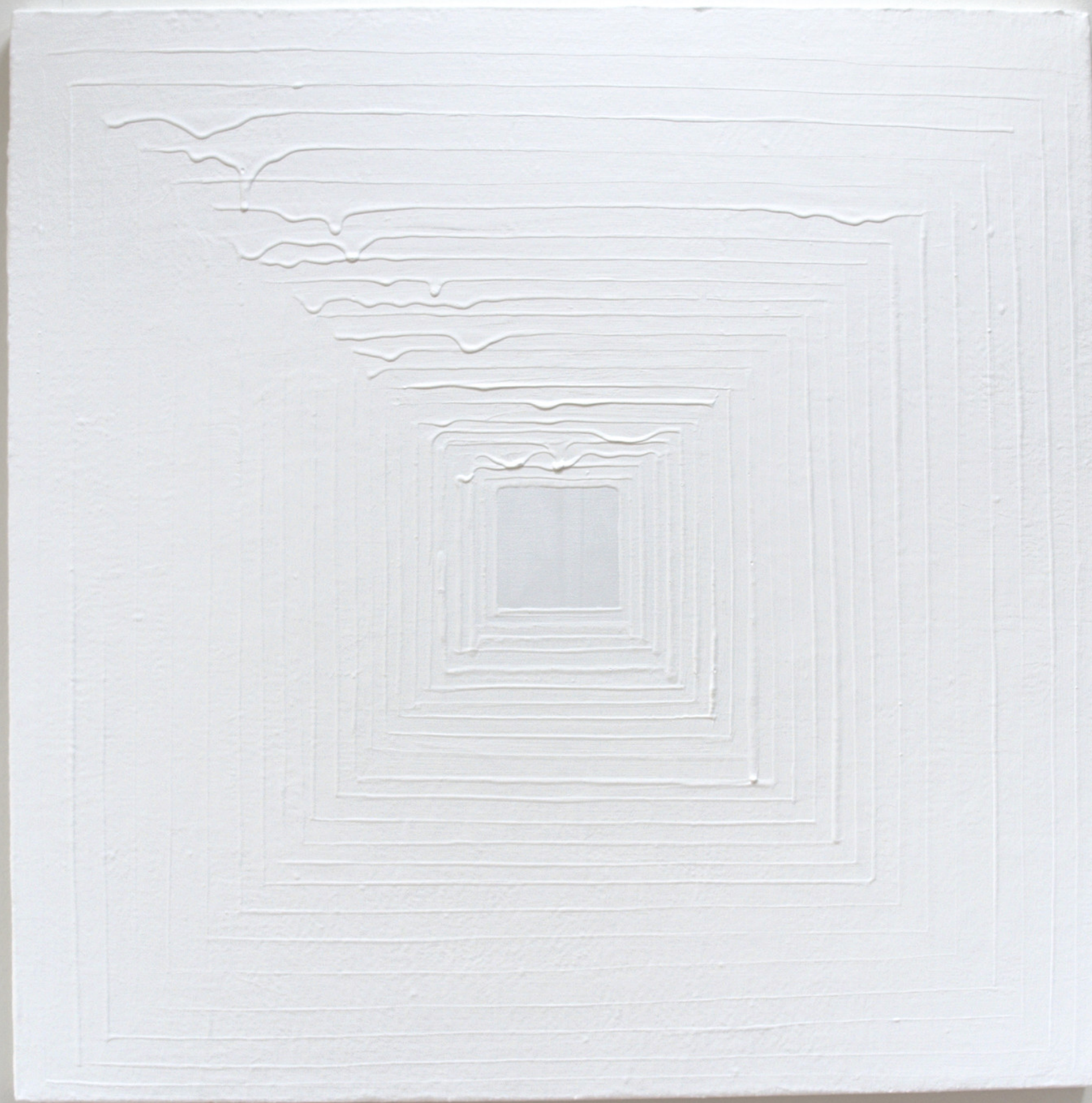
Two Mountains

Marker on canvas

40 x 40 cm

2018

캔버스의 모서리를 따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줄씩 선을 그어 내려간다. 반듯한 직선을 인간의 손으로 재현을 반복하다 보면 선이 조금씩 왜곡되고 변하게 된다. 마지막 선은 처음의 직선과 많이 달라진다.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제작된 두 캔버스의 맨 마지막 선이 기적적으로 맞아떨어진 순간을 포착했다. 나는 마지막 선이 만들어낸 여백의 모양에 집중하여 제목을 〈Two Mountains〉라 지었다.



Viewfinder

Gesso on canvas

91 x 91 cm

2024

“주보람 작가는 매일 하얀색 캔버스에 하얀색 젯소를 칠하면서 끊임없이 그림의 시작을 유보한다. 0에 0을 더했을 뿐인 작품은 층층이 쌓여 올라가고 어느덧 완성인 1의 상태가 된다.”

- 《One Before Zero》 영안 & 주보람 2인전 서문 中



0+0+0+0+0+0+0+0+0+0+0+0=1

Gesso on canvas
50cm in diameter
2014-2024

캔버스에 하루에 한 번 젯소를 칠한다. 대상과 의미가 생기기 전 하얀색을 칠하는 행위를 반복한다. 캔버스에 처음 가해진 붓질이 1이라면 젯소가 칠해진 상태는 0이다. 0에 0을 더한다. 0+0+0+0+0+0+0... 계속 무의 행위만 반복할 뿐인데, 칠의 높이는 시계 바늘처럼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한다. 시작되지 않으려는 그림은 아이러니하게도 끝이 난다.



《문질문질문》(2023, JUNSIJANG) 전시 전경

주보람 Joo Boram b. 1994

학력

2020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개인전

2024 <색색깔 주보람>, 아팅 arting gallery, 서울

2인전

2024 <One Before Zero> 영안 & 주보람 2인전, Space Ink, 서울

단체전

2026 <도슨트가 선정한 오늘의 작가전>, AP 갤러리, 서울

2026 <Oh My Body !>, Garage Under Construction, 서울

2025 <매칭쇼>, 아팅 arting gallery, 서울

2024 <어떻게 살 것인가?>, 아팅 arting gallery, 서울

2024 <천재 화가, 천경자를 기리고 그리다>, 고흥아트센터, 고흥

2024 <예술말고미술 : 평론가 공동구매>, 육일봉, 서울

2023 <문질문질문>, JUNSIJANG, 서울

2023 <THE LOADING>, 아트스푼, 서울

2023 <WORKROOM>, 아트스페이스 플라스틱 프로그, 고양

2023 <씨비전 : 부산>, 안녕, 예술가, 부산

2023 <미미미美微未 : 작은 미술 세계>, 아팅 arting gallery, 서울

2022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 고색뉴지엄, 수원

2022 <지금, 나는 사랑하고 있어.>, 아트룸 블루, 서울

2022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 고색뉴지엄, 수원



Thank You

iboramjoo@naver.com
+82-10-7209-3626
@iboramjoo
blog.naver.com/iboramjoo



《One Before Zero》(2024, Space Ink) 2인전 퍼포먼스 전경